

채용·교육·감사까지...혁신도시 언택트 바람

한전KPS AI면접·사학연금 신입직원 집에서 직무 역량 교육 한전 그룹사·aT 등 자체 시스템 활용...지사 비대면 감사체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채용부터 교육·감사 등 내부 행사 전반에 대한 비대면 전환에 들어갔다.

◇AI가 면접보고 집에서 신입사원 교육 =한전KPS는 최근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면접으로 체험형 인턴 484명을 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면접전형을 진행하면서 질문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면접은 성과역량, 성장역량, 관찰특성 3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면접전형 합격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산출된 평가 점수만 반영됐다.

이번에 뽑힌 체험형 인턴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한 484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석 달 동안 한전KPS 전국 사업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신입직원 20여 명은 입문교육부터 재택근무로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나주 본부에서 열린 '2020년도 신입직원 임용식'에 참여한 뒤 이틀날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2주 동안 직무지식·비즈니스 매너·기본소양 등의 신입직원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

으로 교육으로 받았다. 입문교육 1주차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재택수업이 진행됐고, 2주차부터는 '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한 사내 비대면 직무 역량 교육이 이어졌다.

한전KDN도 신입사원 연수를 포함, 다양한 업무에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 달부터 사내 교육 분야에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원격교육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한전KDN 신입사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던 전남의 한 숙박시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연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전KDN대학생 홍보대사인 '케이미' 발대식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뉴딜시대 혁신 해커톤 대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하는 등 하반기 주요 행사들을 비대면으로 열고 있다.

또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강화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서버 가상화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지사 비대면 감사체계 돌입 =한전KPS는 이달 초 비대면 전용 감사장 '랩(LAB) 센터'를 나주 본사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랩 센터'는 한전

KPS의 전국 59개 사업소와 해외 12개 사업소에 대한 화상감사를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감사자료 온라인 실시간 제출과 다자간 영상통화 환경을 구축했다.

한전KPS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최초로 화상 감사 시스템인 '랜선 오디트'(Audit)를 구축하고, 당초 60%인 화상감사 비율을 확대해 100%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KDN은 자체 개발한 '청백e-감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감사로 대부분 업무를 전환하면서 원격 화상영상회의, 확인서·질문서·문답서 온라인 제출 등이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전KDN은 전국 사업소 단위별로 30여 명의 준(準)감사인을 지정했다. 이들은 사업소 자체 청렴활동과 위험 사전 예방을 펼치는 역할이 주어졌다. 직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직접 감사장에 나오지 않아도 뚝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확산 우려도 줄일 수 있었다.

한전KDN 측은 설명했다. 사학연금은 비상 때 감사 공백 최소화를 위한 상황별 '감사업무 비상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홍수·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단계별 권장 복무형태(재택근무) 이행계획과 인력 공백 최소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면 감사 확대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과 감사협의체 비대면 회의 전환 ▲감사업무 전임자 부재 발생시 부전임자, 부부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복수(3-line) 검토제 실시 ▲온라인 소통채널(카카오톡·밴드 등)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시 일상감사 업무처리기준 등의 비상대응 체계 마련 등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업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지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감사를 비대면으로 시행한다.

aT는 매해 6개 해외지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지사는 중국, 일본, 아세안지역 6곳이다.

앞서 aT는 감사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화상감사장도 구축했다.

비대면 감사에는 aT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온라인 해외지사관리시스템'이 적극 활용된다. 이 시스템은 사내 문서 기록과 해외지사 예산·재무 등이 통합 관리되고 있다.

aT는 지난 4월과 8월 충북과 부산울산지역본부 2곳을 대상으로 비대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15일 '농업·농촌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며 행사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행사 기간동안 김홍상 연구원장의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과 미래를 위한 농정개혁'과 정부와 지자체, 학계, 농업인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하 콘진원)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일환으로 '콘텐츠IP보증제도'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콘텐츠IP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으로 콘텐츠IP 보유기업과 이용기업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으로서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해 OSMU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저작권 등 콘텐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스타트업 자금 조달 돕는다



10월8일까지 KSM 등록 희망기업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KRX Startup Market) 등록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오는 10월8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KSM은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유치 기반을 확보하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1월 개설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KSM에 등록되면 크라우드 펀딩 자금 조달, 한국거래소 투자자문위원회 IR 검토 및 투자 유치, 맞춤형 교육·컨설팅, 코넥스(KONEX) 상장 특례 적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넥스는 자본 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정보보호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금 조달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신청 대상이다.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달 외부 심의 등을 거친

뒤 추천기업을 선정해 KSM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0월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국내 정보보호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해 KSM 등록을 희망하는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심의해 모두 8개 기업을 추천, 투자유치를 받았다.

올해는 KSM 등록 지원 외에도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KRX 보유 벤처투자자(VC) 대상 기업 홍보(IR) 및 자료 컨설팅, 투자 검토 ▲기업 간 M&A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설명회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IR 혁신경연대회 및 투자상담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진원, 신보와 콘텐츠IP도 신용보증

'콘텐츠IP보증제도' 신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하 콘진원)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일환으로 '콘텐츠IP보증제도'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콘텐츠IP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으로 콘텐츠IP 보유기업과 이용기업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으로서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해 OSMU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 IP를 활용

한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 IP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과 콘텐츠IP 라이선싱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산업기업도 포함됐다.

콘진원은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 받은 콘텐츠기업을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보증심사를 진행해 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시 콘진원 추천기업은 보증한도, 보증비용(90%), 보증료(최대 0.9%) 등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력거래소, 신재생 예측값 반영 SMP 신뢰도 높여

전력거래소는 신재생 전력시장가격 정확성을 높여 전력시장가격(SMP) 신뢰도를 높였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전력거래소는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에 제주 신재생발전 예측값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전력시장가격 산정 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을 포함한 비중앙발전의 입찰값을 최근 7일간의 실적 평균을 적용해왔다.

전력거래소는 이런 방식이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완에 나섰다.

우선적으로 제주 신재생 예측치를 가격결정발전계획에 올해 1월1일부터 반영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총괄하는 신재생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청림 아카데미'

10월24일까지 7주간 진행

온라인 플랫폼 이용 비대면 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오는 10월24일까지 7주 동안 '청림 아카데미' 3기 교육을 주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사학연금, 한국투자증권, 주한미국제사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청림 아카데미' 주제는 '나와 청림'이다. 교육 기간 동안 이론 강의, 기업 탐방, 토론회, 세미나 등이 펼쳐진다.

사학연금은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금운용내부통제 규정 등 강의를 진행한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이기는 건강 한식 체험 주제로 마련된 K-푸드를 체험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1~13일 몽골 울란바토르 상그릴라몰에서 개최한 '한국식문화 체험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코로나를 이겨낼 건강한 먹거리'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1~13일 몽골 울란바토르 상그릴라몰에서 개최한 '한국식문화 체험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코로나를 이겨낼 건강한 먹거리'라는 <aT 제공>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